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사 '순조'

1단계 구간 공정률 5%... 전 구간 토지보상 완료 2025년까지 단계적 개통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단비

지난해 10월 착공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가 되고 있다.

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5% 수준이다. 1단계는 시청~상무역~급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 구간이다.

총 6개 공구에서 동시에 굴착과 복공판(공사 구간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 두는 판)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공구별로 도시가스 등 지하 매

설물이 없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부터 시작하고 있다.

우선 공사구간은 1공구 상무중앙로 유덕 교차로, 2공구 급화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3공구 월드컵서로 월드컵경기장 입구, 4공구 대남대로 미래야동병원, 5공구 필문대로 지산사거리, 6공구 필문대로 산수오거리 주변이다. 우선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지하 10m까지 굴착 공사를 하고 복공판을 설치하면 계속해서 공사 구간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1단계 모든 구간에 굴착과 복공판 설치를 완료하고 차량이 들어갈 콘크리트 박스와 레일 설치 작업 등이 진행

된다.

1단계 모든 구간의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대상 필지는 영구 편입 34필지 4083㎡, 일시 편입 12필지 1110㎡로 보상비는 382억원(국비 217억·시비 164억원) 규모다.

유선동에 들어설 차량기지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가설 율타리·도로 개설,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1단계 구간에 포함된 백운고가 철거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조기집행을 위해 주·월별 공정 설정, 수시 현장 점검, 공구별 작업구 확대 등에 집중할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국비 830억원 중 92%인 764억원을 집행완료

했다.

조기집행 성과에 따라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사업 과정에서 지역민 고용,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공 후 현재까지 고용된 연인원 1만4938명 가운데 지역 인력만 1만2676명에 이른다. 지역 장비 사용도 4847건으로, 지역 인력·장비를 85%이상 활용했다는 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단계 20km구간 설계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품질확보를 위해 추진한 특정공법 및 자재 선정에서 10개 모두 지역업체가 선정됐으며, 일반 설계금액 1034억원 대비 제안금액 651억원으로 321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 1년만에 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는 굴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두암지구 입구 지하철 공사현장.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R&D 총괄기능 강화... 지역 주도성장 초점

정책 연계성·성과관리 개선

전남도는 4일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개선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 R&D 총괄기능 강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그동안 R&D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도정 연계성 부족, 성과관리 체계 미흡, 제조업 R&D 편중, 국가 대형 R&D 사업 유치 부진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고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실현 등 지역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는데도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부서 중심으로 R&D 사업기획 기능 강화 ▲R&D 사업에 대한 예산연동 성과관리 체계 가동 ▲기반구축성(건축, 장비구입) R&D 사업에 대한 질적 제고 ▲현장 중심 R&D 지원 및 사·군 R&D 역량 강화 ▲국가적 장기·대형 R&D 사업유치 추진 등이다.

특히 총괄부서인 연구바이오산업과 중심으로 R&D 과제 선정부터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까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농수산 분야의 R&D 사업 등을 확대기로 했다. 연차별 정책부합성과 비용 편익분석, 사업 확장성 등을 평가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동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역 R&D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연구바이오산업과를 총괄부서로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남 기관으로 전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광주시,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광주시는 4일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에 대비한 동절기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들어간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위해 가금류 사육 농가 소독과 예방을 강화하고 전통 시장 가금류 판매소에서는 월 2회 이상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공항 중심 '토탈관광 패키지사업' 유치 추진

전남도, TF 운영

전남도가 호남의 국제관광인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청정자연과 전통문화에 스마트관광서비스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사업' 유치 TF팀을 운영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은 문체부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 국제공항을 관문으로 지방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스마트서비스를 함으로써 해당 권역에서 모든 관광이 이뤄지는 '지역완결형관광'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지방 국제공항이 있는 전남과 부산, 대구, 충북, 강원, 5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서면과 발표심사를 통해 11월께 최종 2개 시

·도를 선정해 각각 135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2021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체험형 한국관광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유치 TF팀을 구성, 5일 첫 회의를 하고 사업계획 수립유역을 추진하는 등 본격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전남관광재단, 관광 분야 대학 교수 등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공모사업 기획전문가, 전남도 관련 실과장 등 20여 명으로 꾸렸다.

첫 회의에서는 섬·해양 등 청정 생태자원과 역사·예술·문화 등 풍부한 전통자원을 활용,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한국을 제대로 알고 추억을 쌓아 다시 찾고 싶게 하는 콘텐츠를 집중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청 주차장 내년부터 유료화

광주시청 주차장이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요금 정산 시스템, 차량 차단기, 번호 인식기 등 설비 공사를 마쳤다. 시는 연내에 요금 등 세부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 그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청과 주변에는 지상 839면, 지하 543면 등 1382면 주차장이 있으나 등록 차량은 2247대여서 주차난이 컸다. 관광버스 등을 타러 시청에서 집결한 여행객이 자신의 승용차를 장기로 세워두는 사례도 잦았다. 하지만 예외 없이 유료화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업무차 시청에 머무르는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현황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광주 공동주택(아파트) 10%를 무작위 추출한 5만6000여 가구로,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1개월간이다.

시는 설문 참가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 조사도 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98억 지급...미신청자 추가 접수

광주시는 "자체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 업소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1~25일 시, 자치구 등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98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했다.

집합금지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9억6000만원, 고교생(학교 밖 청소년) 40억8000만원, 대학생 36억7000만원, 임신부와 신혼부부 1억6000만원 등이었다. 시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추가로 접수해 이달 중 서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